

통 풍 (通風)

편 집 실

엄지발가락 관절이나 무릎 등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염좌(捻挫; 뺨긋)된 것 같이 붉게 부어오르면 통풍이 의심된다. 맨처음 나타나는 증상은 50% 정도가 엄지발가락 관절의 참을수 없는 통증을 느끼는 것이며, 30%는 엄지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이나 발목에 통증이 오는 것이고, 나머지 20%는 무릎, 손목, 손가락에 통증이 온다. 이러한 증상은 열기(熱氣)를 띠고 부어오르기 때문에 염좌와 혼돈하기 쉬우며, 골프나 야구 등으로 관절을 다친일이 없는데 발, 무릎, 손의 관절이 아픈 사람은 통풍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합 병 증>

통풍은 격통(激痛)도 문제이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그 방아쇠가 되는 고뇨산혈증(高尿酸血症)이다. 통풍환자의 발증시 평균혈청요산치는 10.1mg/dl이며, 일반적으로 80mg/dl 이상의 고뇨산혈증상태가 반년이상 계속되면 요주의상태이다. 이때에는 통풍 발작을 일으킬 위험성이 있을뿐만 아니라 발전하여 고혈압, 당뇨병, 심근경색, 뇌연화증, 신부전 등이 되기 쉽다. 실제로 통풍인 사람을 조사해보면 동연배의 보통사람에 비하여 콜레스테롤이 많고 중성지방치(中性脂肪値)가 높다. 이들에게는 당뇨병 전구증상(前驅症狀)이나 가벼운 신(腎)장해가 있는 경우가 많으며 약 80%가 하나이상의 합병증을 갖고 있다. 이 병은 남성에게 압도적으로 많고, 통풍환자의 5%만이 여성이며 통풍발작도 폐경기(閉經期)이후에 나타난다.

<원 인>

통풍은 퓨린체(purine bodies)란 물질의 대사(代謝)에 이상이 생겨 혈중 요산값(尿酸値)이 높아져서 요산 결정(結晶)이 관절이나 그 주변에 침착되어 아픔을 일으키는 병이다. 이러한 증상은 비만타입의 미식가(美食家)나 대주가(大酒家)에게서 많이 나타나며 식생활이 서구화되어감에 따라 최근에 증가하고 있다.



〈고노산혈증(高尿酸血症)〉

퓨린체 신진대사에 이상이 생겨 나타나는 것이 고노산혈증인데 요관(尿管)내에서 요의 pH가 낮을 때 요산이 침착되어 결석(結石)을 만들며, 환자의 5% 이내에서는 서서히 진행되는 신장기능 장애를 일으킨다. 또한 고노산혈증은 조혈(造血)장애, 건선(乾癬), 점액수종(粘液水腫), 부갑상선기능 항진 또는 저하, 심근경색, 신장질환, 비만증 등을 일으킨다.

〈통풍발작의 빈도〉

처음 몇번의 발작은 단 며칠동안만 지속되지만 계속해서 치료하지 않으면 수주간 지속된다. 통풍성관절염의 발작사이 무증상간격은 일정하지 않으나 병의 진행에 따라 단축되는 경향이 있다. 예방책을 쓰지않으면 연간 몇차례씩 발작이 일어난다.

〈통풍의 치료〉

고노산혈증은 성인병의 온상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이 때문에 통풍을 치료하는 것은 여러종류의

성인병예방에 도움이 된다. 처음에 발작했을 때에는 통풍에 특효약인 콜히친(Colchicine)을 사용하는데, 이 약에 대한 반응이 아주 민감하다. 따라서 통풍의 의심이 있는 환자에게 콜히친을 투여한후 12시간내에 통증이 사라지면 통풍이라고 진단할수 있으므로 진단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빈번한 설사나 부작용이 동반되므로 콜히친은 최소량을 투약하고 그후에는 소염(消炎)진통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당뇨병이나 신장병 등의 합병증이 생기면 치료를 해야하며 치료의 원칙은 혈중노산치를 5mg/dl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혈중노산치의 조절제(劑)에는 요산배설을 촉진시키는 probenecid와 요산합성을 억제시키는 allopurinol의 두종류가 있다.

〈비만타입의 맹렬사원은 요주의〉

발작이 생기면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하는 통풍을 예방하는 법은 한마디로 '인생을 너무 맹렬하게 살지말라'는 것이다. 일본에서 씨름선수나 프로야구 선수 다음으로 통풍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일도 열심히 하지만 폭음폭식을 즐기는 비만타입의 소위 '맹렬사원'들이다. 균형잡힌 식생활, 과음을 피하고, 과로하지 않고 표준체중을 유지시키는 것이 통풍예방의 비결이다. ♣

원고를 모집합니다!

본 회보는 회원 여러분의 대변자로서 지면을 통해 그 많은바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하고자 합니다.

본 회의 회원을 비롯 산업보건에 관심이 있는 분이든 누구나 이용할수 있는 본 회보에 많은 투고와 성원을 기다리며 다음과 같이 원고를 모집합니다.

- 원고내용**
- 산업보건사업 및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제언
 - 산업보건에 관한 학술논문 및 조사연구보고
 - 현장사례
 - 산업보건 관련자료
 - 시, 수필, 콩트 등

보낼곳 우편번호 137-063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3동 1022-1번지
대한산업보건협회 편집실

게재된 원고는 소정의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게재 여부는 본지의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